

부산지역 기업 근로자 중심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 조사

2025. 7.



< 조사개요 >

1. 조사명

- 부산지역 기업 근로자 중심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 조사」

2. 조사목적

- 최근 생성형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업무 도구로 활용됨과 동시에 대중의 활용도 및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부산지역 기업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현황과 인식, 보안수준, 교육수요 등에 대한 실태 파악하고 기업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함

3. 조사대상

- 부산지역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320명
※조사표본: 20대(20명), 30대(106명), 40대(114명), 50대 이상(80명)

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표 회수 용역: 엠브레인

5. 조사내용

- 생성형 AI 활용 빈도 및 목적, 숙련도, 애로사항 등
- 기업 내 AI 활용에 대한 분위기 및 개인적 인식

6. 조사기간

- 2025. 5. 26.(월)~7. 31.(목)

I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

1. 국내 기업의 AI 도입 현황

- 2023년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6.4%로 2018년(2.8%) 대비 3.6%p 증가
 - 기업의 AI 도입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추세
 - 전체적으로 AI를 도입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AI 기술의 가치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26.1%)에서 생성형 AI 도입률이 가장 높음
 - 이어 금융 및 보험업(15.7%), 교육 서비스업(15.5%), 제조업(4.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AI 도입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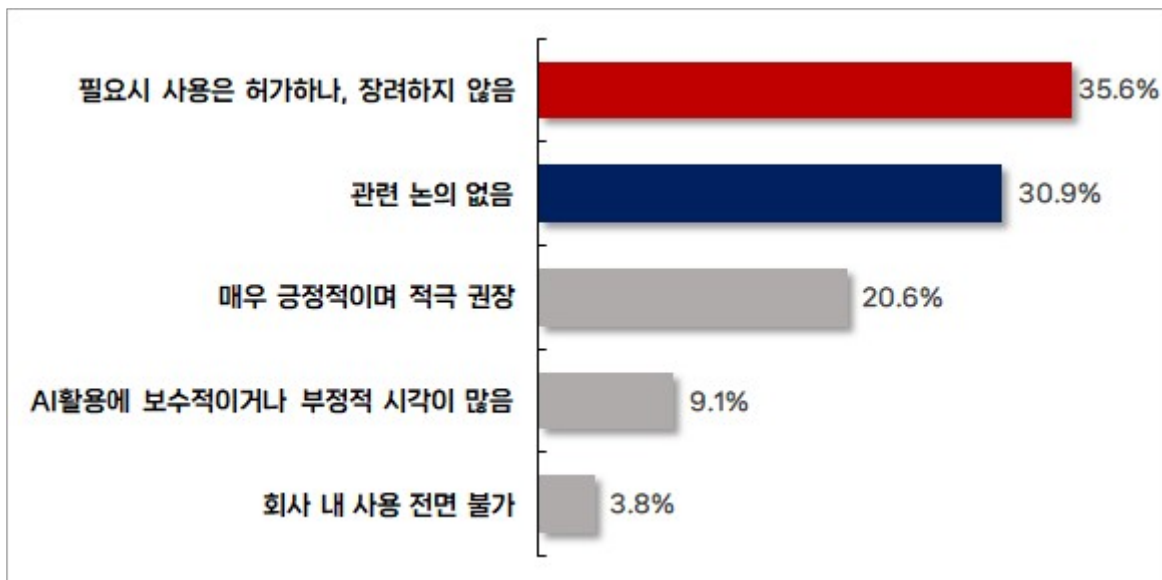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 지역 기업의 AI 도입 수용성

-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 기업 10곳 중 4곳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생성형 AI에 대해 ‘필요시 허용하나 장려하지 않음’(35.6%), ‘AI 활용에 보수적이거나 부정적’(9.1%), ‘회사 내 사용 전면 불가’(3.8%)로 나타남
 - 이는 AI 활용에 따른 보안 문제나, 책임 문제 등의 이유로 지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AI를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
- 한편,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 권장’이라는 응답이 20.6%로 적지 않았음. 특히, 정보통신업(51.2%)은 생성형 AI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응답이 타 업종 대비 압도적으로 높음
 - 이는 텍스트나 데이터 중심인 정보통신업의 업무 특성상 AI 접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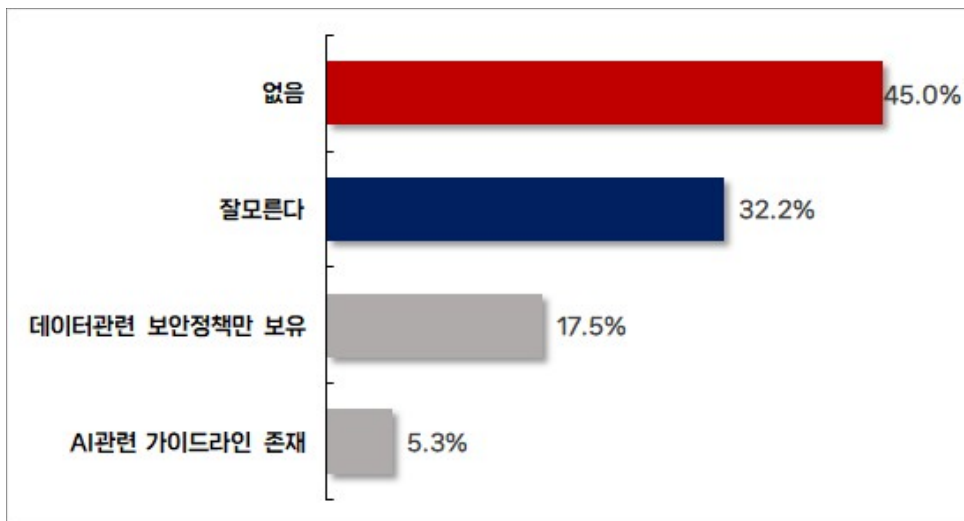
〈생성형 AI에 대한 지역기업 내 인식〉



3. 지역 기업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 지역 기업 중 단 5.3%만이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
 - 지역 기업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AI관련 가이드라인 존재’(5.3%), ‘데이터 관련 보안정책만 보유’(17.5%), ‘잘 모름’(32.2%), ‘관련 가이드라인 없음’(45.0%) 으로 응답
 - 대부분의 지역 기업은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 특히,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교육·연구업 등 활용도가 높고 기술 보안도 중요한 산업에서는 정보유출 방지를 포함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생성형 AI에 대한 기업 내 가이드라인 유무>



II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

1. AI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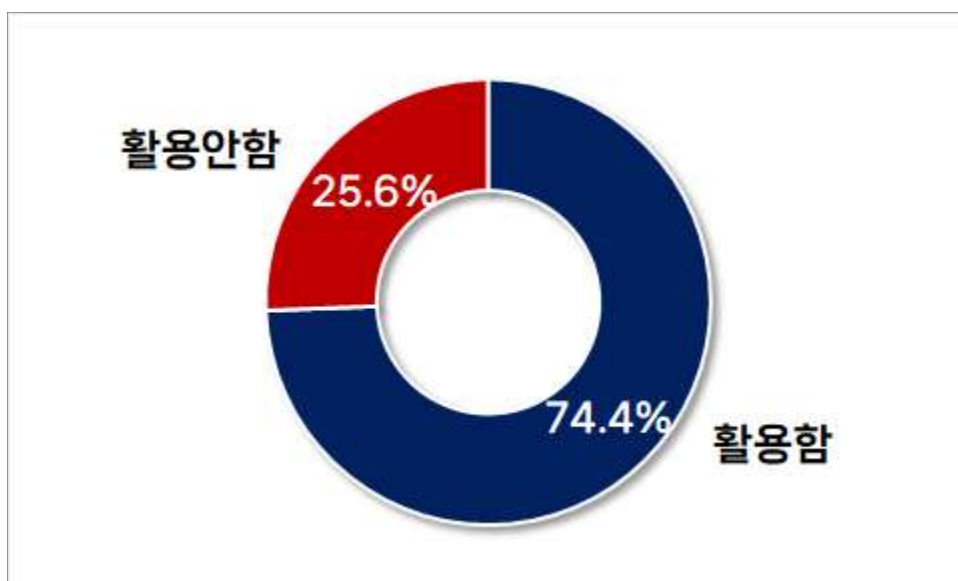
○ 지역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생성형 AI를 활용

- 2025년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74.4%로 *2023년(56.3%) 대비 18.1%p 증가하며 큰 폭 상승

*부산상공회의소 「지역기업 챗GPT 인식 및 활용」, 2023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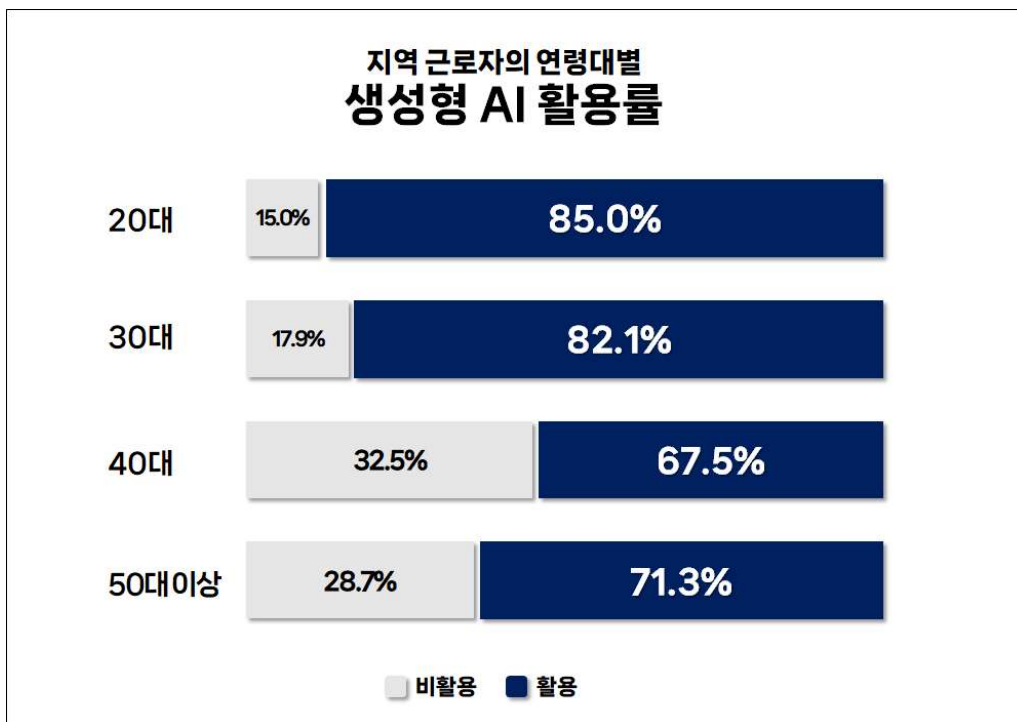
- 이는 ChatGPT, Gemini 등 생성형 AI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활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AI 인지도와 수용도가 높아졌기 때문
- 특히, 생성형 AI는 별도의 전문 기술 없이도 일상 언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음
- 반면, AI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활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59.8%), ‘개인정보유출 및 부정확한 정보 등 신뢰성 부족’ (18.3%),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움’(15.9%), ‘답변수준 미달’(3.7%), ‘회사 내규로 인한 활용 불가’(2.4%) 등으로 나타남

<지역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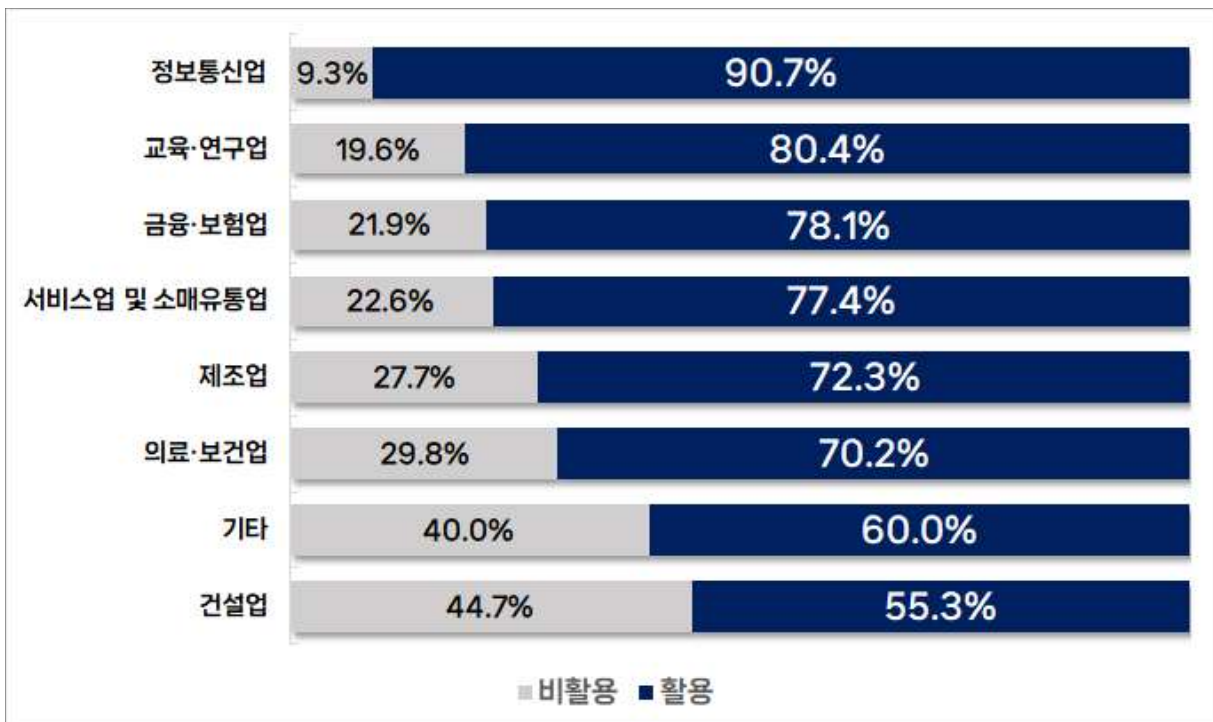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는 20대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률이 85.0%로 가장 높음
 - 이어 30대 근로자는 82.1%, 40대 67.5%, 50대 이상 71.3%로 60%를 상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AI가 보편화 됨
 - 20~30대의 경우 친구, 동료, 커뮤니티 등 AI 활용 사례가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활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 능력향상을 위한 학습 등 자발적인 활용이 많은 것으로 보임
 - 한편 50대 이상 근로자(71.3%)의 AI 활용률은 40대(67.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0대 이상 근로자의 경우 팀장·임원 등 관리자급으로서 사업기획 및 조직관리 차원 등에서 AI 활용을 주도했기 때문

〈지역 근로자의 연령대별 생성형 AI 활용률〉



-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90.7%) 근로자가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활용
 - 이는 텍스트나 데이터 중심인 정보통신업의 업무 특성상, AI 접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고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코딩 보조 등 기능적 활용도가 높기 때문
 - 이어, 교육·연구업(80.4%), 금융·보험업(78.1%), 서비스업 및 소매유통업(77.4%), 제조업(72.3%), 의료·보건업(70.2%), 건설업(55.3%)의 순
 - 생성형 AI의 정형화된 문서·정보 처리에 적합한 특성으로 인해, 교육·연구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과 같이 민원응대와 문서작성 등 반복형 업무가 많은 업종에서도 높은 활용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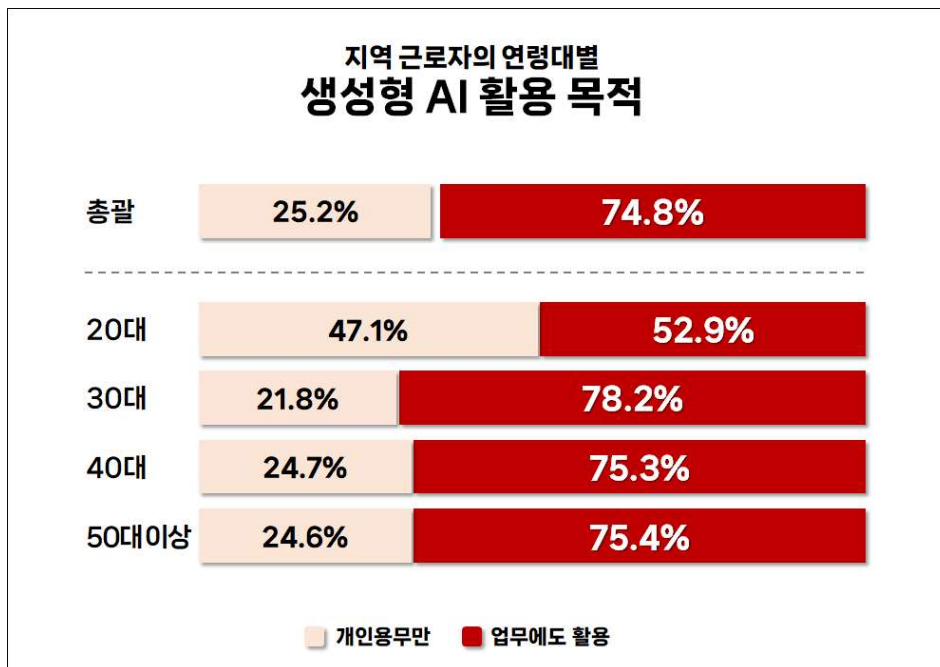
<지역 근로자의 업종별 생성형 AI 활용률>



2. AI 활용 목적

- 생성형 AI 활용 근로자 74.8%는 이미 실질적인 업무도구로 생성형 AI를 활용
 - 연령대별 업무 활용도를 보면 20대 52.9%, 30대 78.2%, 40대 75.3%, 50대 이상 75.4%로 나타남
 - 20대 근로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AI를 자기개발 및 개인취미와 같은 개인용무에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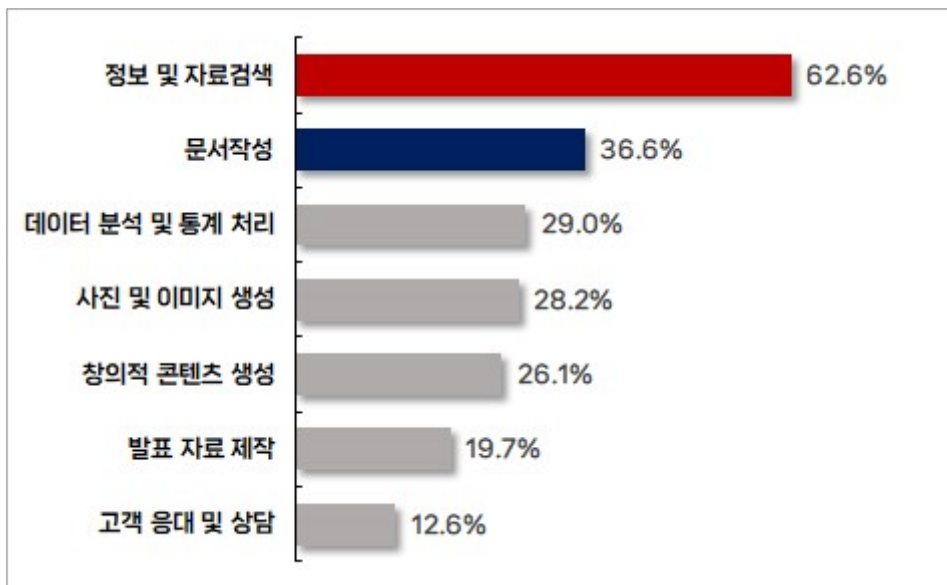
<부산 지역 근로자의 생성형 AI 주요 활용 목적>



- 세부 활용별로는, 생성형 AI를 ‘정보 및 자료검색’(62.6%)에 가장 많이 활용
 - 이어 ‘문서작성’(36.6%), ‘데이터 및 통계분석’(29.0%), ‘사진 및 이미지 생성’(28.2%), ‘창의적 콘텐츠 생성’(26.1%) 등으로 나타남
 -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하게 업무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특히, 상당수의 근로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복적·형식적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또한, AI에게 핵심 업무를 일임하기보다, AI를 통한 초안 작성 및 필요정보 탐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부산 지역 근로자의 생성형 AI 세부 활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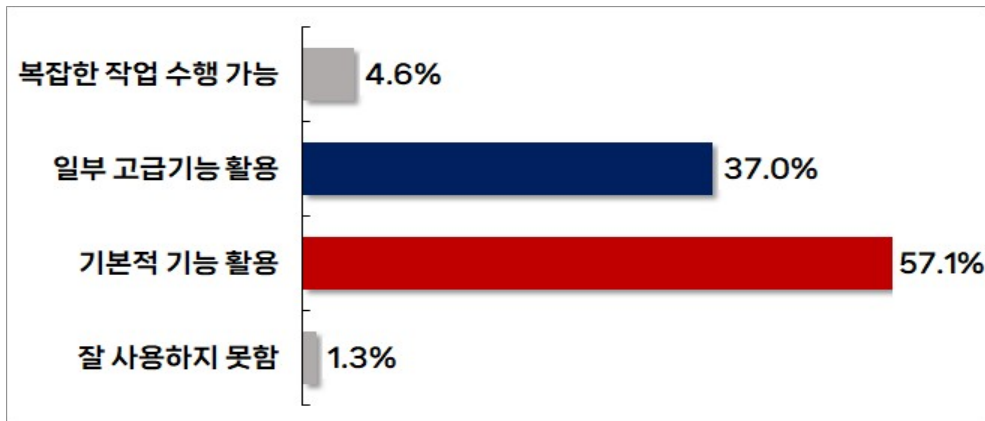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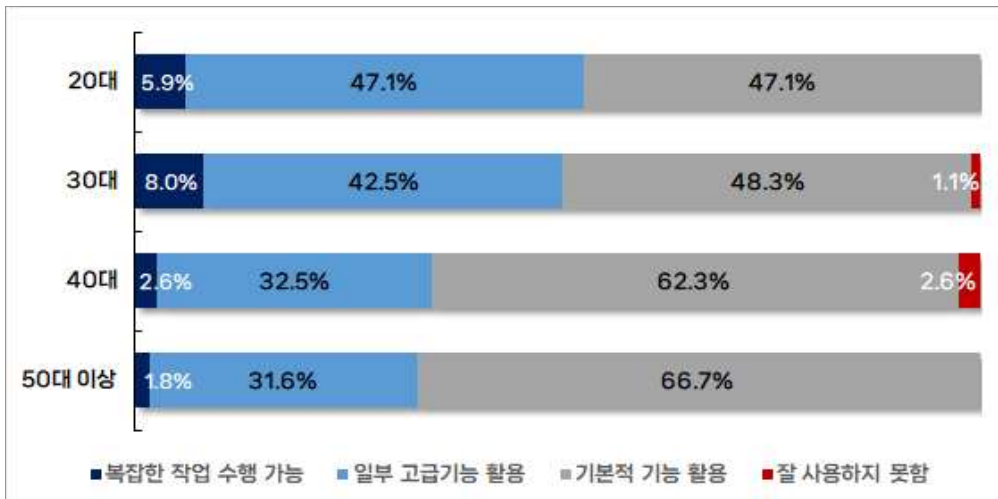
3. AI 활용 수준

- 부산지역 근로자 대부분의 생성형 AI 활용 수준은 높은 편
 - 특히, 10명 중 4명은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여러 AI 툴 활용 등 심화된 기술도 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생성형 AI로 ‘기본적 기능 활용’(57.1%), ‘일부 고급기능 활용’(37.0%), ‘복잡한 작업 수행 가능’(4.6%)으로 나타났으며, ‘잘 사용하지 못함’은 1.3%에 불과
 - 연령대로 보면, 20·30대의 숙련도가 40·50대 이상보다 높음. 이는 20·30대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 커뮤니티를 통한 자료 공유 등 활용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부산 지역기업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능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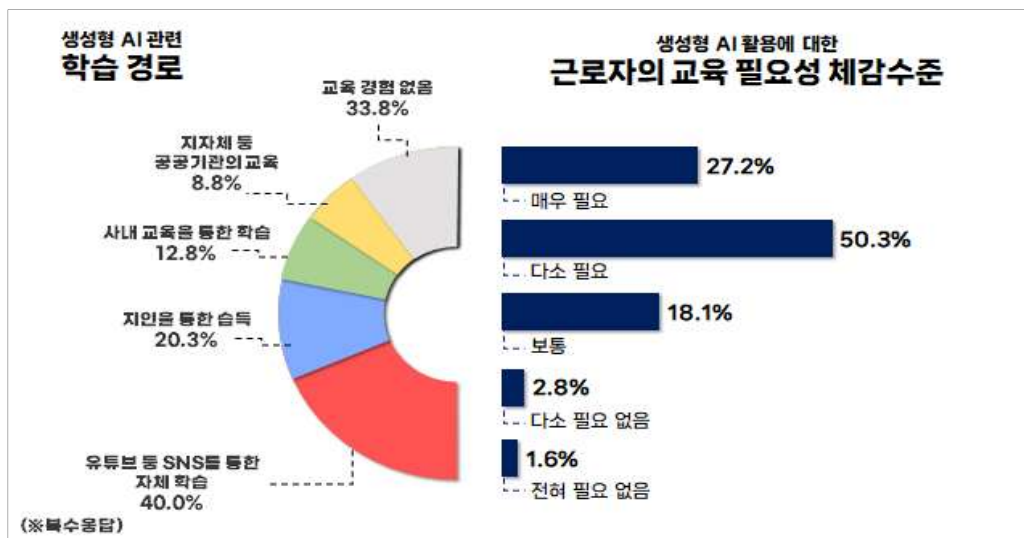
〈연령대별 생성형 AI 활용 숙련도〉



- 직장인의 AI활용 학습 경로는 공식적인 학습보다는 SNS나 지인 등과 같은 개별적 채널을 통한 학습이 가장 많음
 - 학습경로에 대한 실제 응답 결과, ‘SNS를 통한 자체학습’(40.0%), ‘지인을 통한 정보 습득’(20.3%), ‘교육 경험 없음’(33.8%) 등으로 나타남. 이는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 사용하는 생성형 AI의 특성상, 특별한 교육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
 - 반면, ‘사내 교육을 통한 학습’(12.8%),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한 학습’(8.8%) 등 전체의 21.6%만이 공식적인 경로로 학습

- 직장인의 생성형 AI 학습 경로가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개별 채널을 통한 자체적 정보 습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음
 - 실제, 교육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5%(‘매우 필요’ 27.2% + ‘다소 필요’ 50.3%), ‘보통’(18.1%), ‘다소 필요 없음’(2.8%), ‘전혀 필요없음’(1.6%)의 순
 - 근로자 중 상당수(‘매우필요’ 응답)는 생성형 AI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요구
 - 이는 지역 근로자가 생성형 AI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니즈와 윤리문제·오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

〈생성형 AI 학습 경로 및 교육 필요성 체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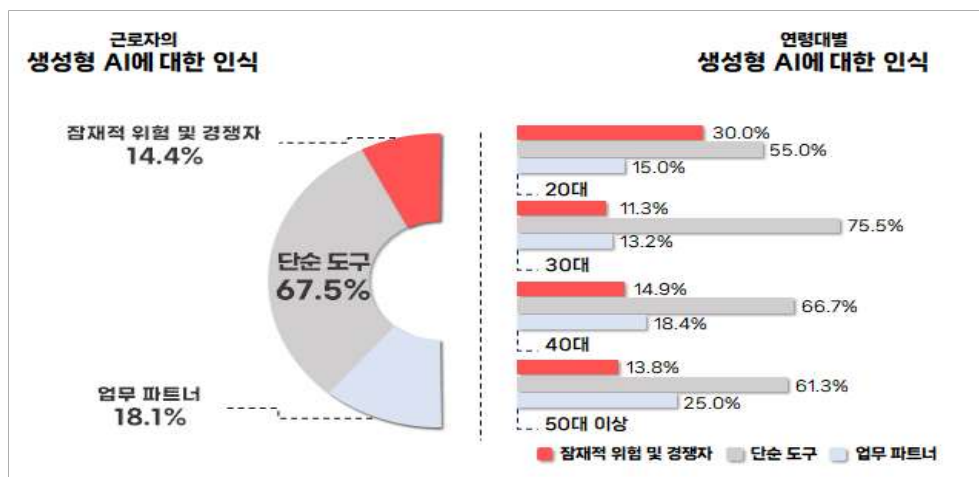


III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과 활용 전망

1. AI에 대한 인식

- 지역 근로자 3명중 2명이 생성형 AI를 단순 도구로 인식
 - 생성형 AI에 대해 지역 근로자는 AI를 ‘단순 도구 수준으로 인식’(66.6%), ‘업무 파트너로 인식’(18.1%), ‘잠재적 위협 및 경쟁자로 인식’(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근로자의 AI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
 - 20대 근로자의 경우, 생성형 AI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 대비 2배 이상 높음
 - 이는 경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부터 AI에 의해 대체되면서,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업무구조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
 - 반면, 50대 이상 근로자의 경우, AI를 ‘업무 파트너’로 인식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 대비 2배 이상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 근로자는 주로 업무경력이 많은 관리자급으로서, AI를 활용하여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의사결정과 기획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AI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파트너로 활용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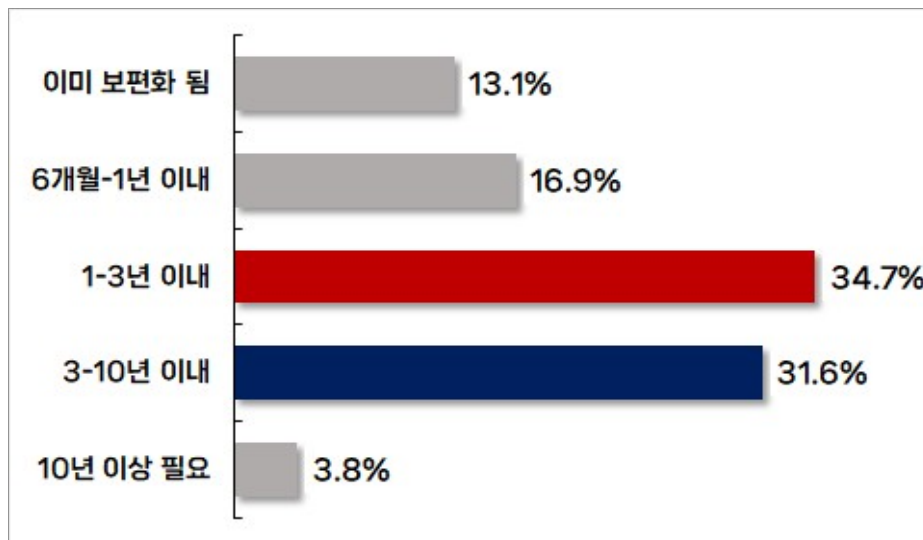
〈부산지역 근로자의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



2. AI 활용 전망

- 지역 근로자 10명 중 7명이 3년 이내에 생성형 AI가 보편화 될 것이라 전망
 - 보편화 시기별로는, ‘이미 보편화 됨’(13.1%), ‘1년 이내’(16.9%), ‘1~3년 이내’(34.7%), ‘3~10년 이내’(31.6%), ‘10년 이상’(3.8%)로 응답하면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
 - 반면,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30% 이상 나타남. 이는 지역의 사업장 별 업무환경 차이와 업무에 따른 AI 접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 이러한 전망 차이는 이미 AI 활용이 활발한 IT 업종에서는 근시일 내에 보편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현장 위주의 업종이나 보수적인 조직문화에서는 AI 도입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는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생성형 AI가 업무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시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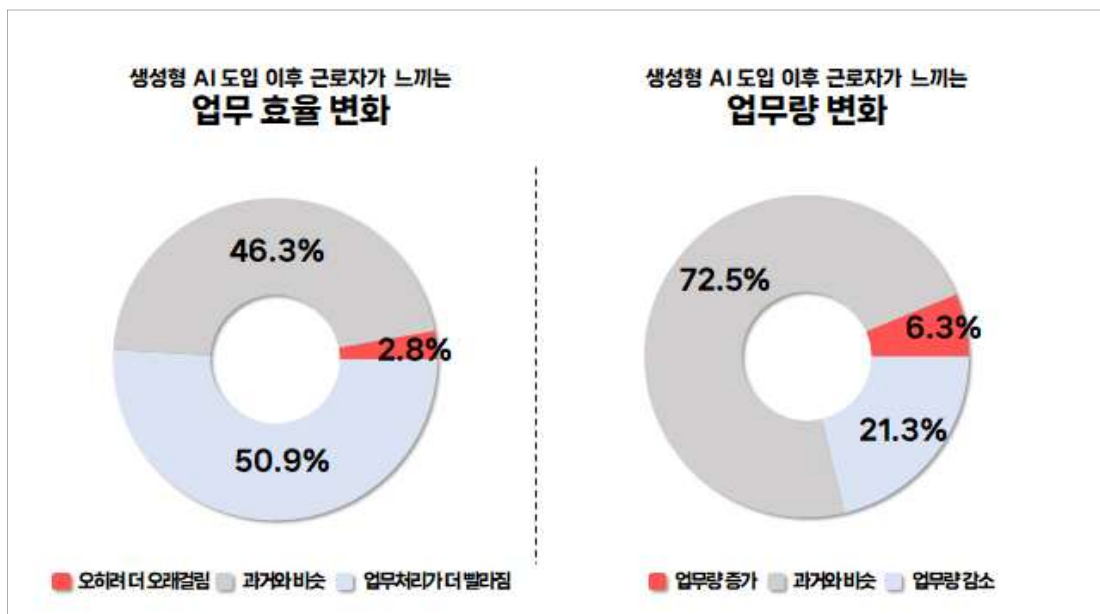


IV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효과

1. AI와 업무 효율

- 생성형 AI 도입 이후 지역 근로자 절반이 ‘업무 효율 상승’
 - 지역 근로자는 생성형 AI 도입 이후 업무 효율에 있어 ‘업무 처리가 빨라졌다’(50.9%), ‘이전과 동일’(46.3%), ‘오히려 효율감소’(2.8%)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아직까지는 생성형 AI 활용이 업무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AI 활용 이후 업무량에 변화에 대해 묻은 결과, ‘변화 없음’(72.5%), ‘업무량 감소’(21.3%), ‘업무량 증가’(6.3%)의 순
 - 이는, 절감된 시간만큼 오히려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거나, 조직 차원의 업무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
 - 다만, ‘업무량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21.3%로 생성형 AI 활용으로 중요 업무에만 집중하여 실질 업무량이 줄어드는 등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을 통한 AI 활용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

<생성형 AI 도입 이후 근로자가 느끼는 업무 효율 및 업무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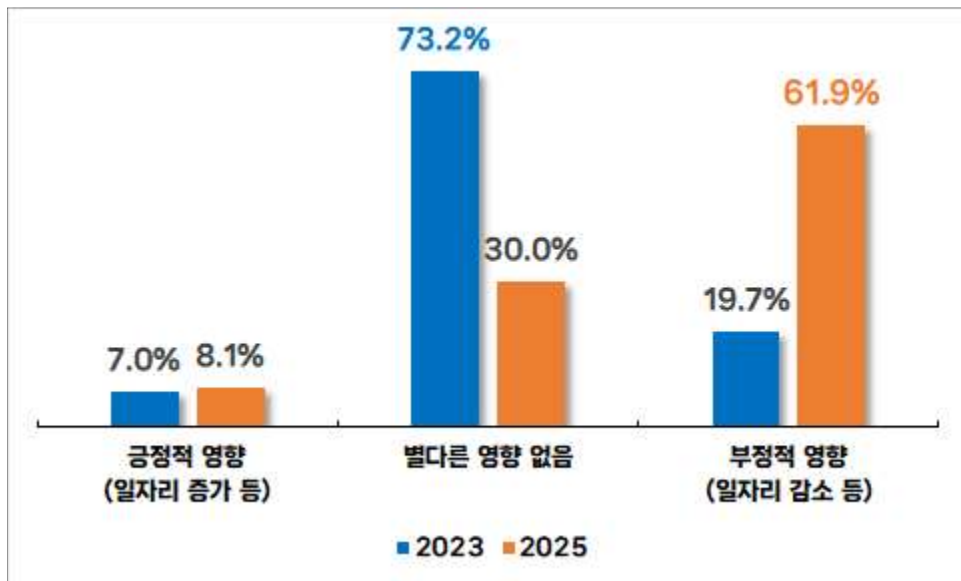


2. AI와 일자리

- AI 도입 및 활용 확산으로 직무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I 도입 후 인력구조 변화에 대해 ‘기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61.9%), ‘별다른 영향 없음’ (30.0%),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조사에서는 73.2%가 AI 발전이 지역기업의 인력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한 것과 달리, 2년 만에 부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2023년 19.7%→2025년 61.9%)

*부산상공회의소 「지역기업 챗GPT 인식 및 활용」, 2023년 참조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향후 인력구조 변화 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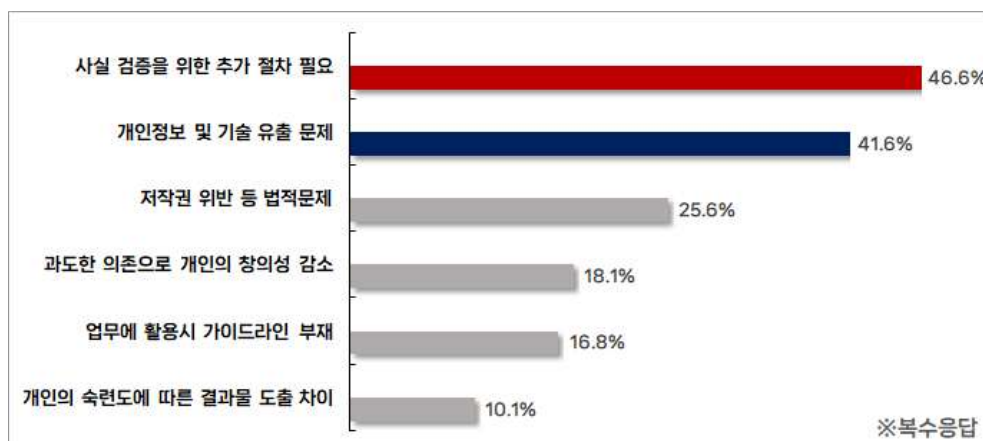


V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애로 및 과제

1. AI 활용 애로사항

-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근로자 46.6%가 ‘사실검증을 위한 추가 절차 필요’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이는 근로자가 생성형 AI로부터 얻은 정보가 갖는 인공지능 환각(AI hallucination), 불확실한 출처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위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 반면, 근로자 중 23.1%만이 데이터를 ‘항상 검증’했으며, ‘종종 검증’(50.8%), ‘검증하지 않음’(26.1%)으로 나타남. 이는 인공지능 환각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근로자 대부분이 AI의 편의성으로 인해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
 - 이외에도 애로사항으로 ‘개인정보 및 기술 유출문제’(41.6%), ‘저작권 위반 등 법적문제’(25.6%), ‘과도한 의존으로 개인의 창의성 감소’(18.1%), ‘업무 활용시 가이드라인 부재’(16.8%), ‘개인의 숙련도에 따른 결과물 도출 차이’(10.1%) 등을 꼽음
 - 한편, ‘개인정보 및 기술 유출 우려’도 문제점으로 꼽히면서 기술적 노하우나 민감 정보를 관리하는 업종에서는 AI 관련 보안 정책이나 사내 지침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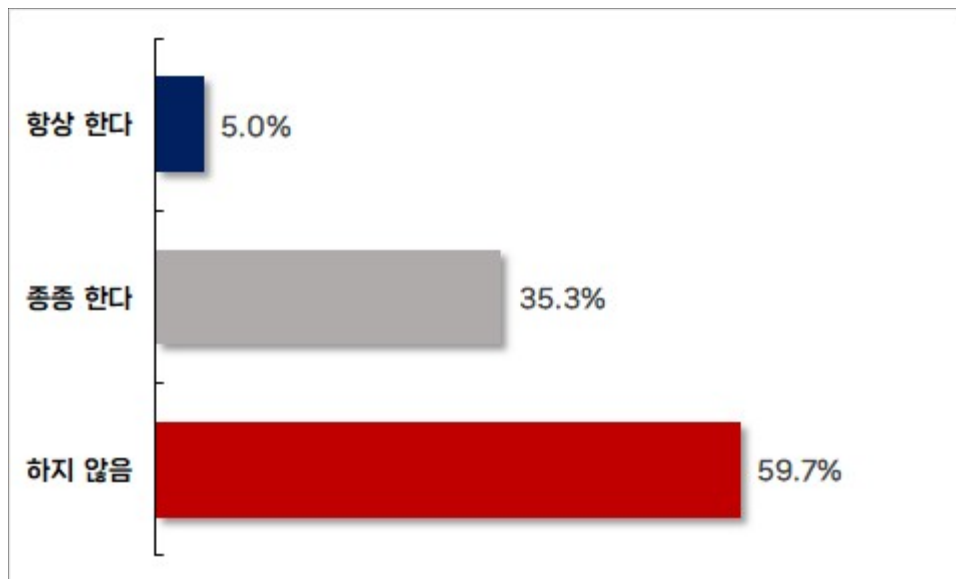
<생성형 AI 활용시 애로사항>



2. 정보보안

- 지역 근로자 중 불과 5.0%만이 정보보안 조치를 ‘항상 수행’함
 - 정보보안에 대해 ‘하지않음’(59.7%), ‘종종 한다’(35.3%), ‘항상 한다’(5.0%) 순
 - ‘정보보안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9.7%로 과반을 상회하여, 생성형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상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 및 대응 마련이 시급
 - 특히, 금융·보험, 의료·보건업 근로자의 경우 ‘항상 정보보안을 수행 한다’는 응답은 전무하여 조직 차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보안 규정 등 구조적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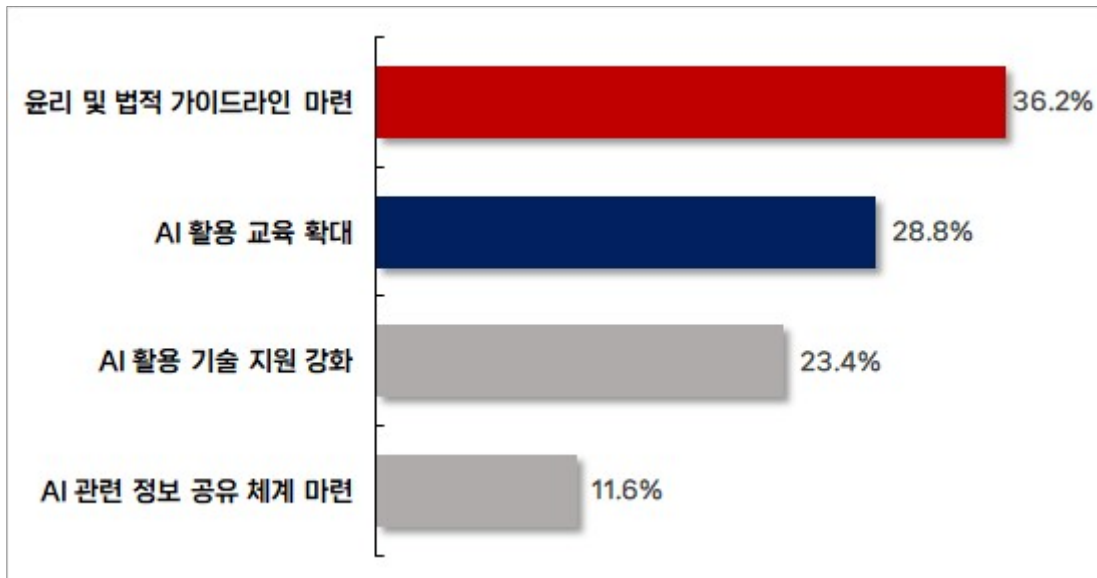
<지역기업 근로자의 정보보안 조치 현황>



3. AI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요구

- 지역 근로자는 생성형 AI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윤리·법적 가이드라인 마련’(36.6%)을 가장 필요로 함
 - 이어 ‘AI 활용 교육 확대’(28.8%), ‘AI 활용 기술 지원 강화’(23.4%), ‘AI 관련 정보 공유 체계 마련’(11.6%) 등의 순
 -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보 유출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지역 근로자는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30대 근로자는 ‘윤리·법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한편, 40·50대 근로자의 경우 ‘AI 활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연령·직무 맞춤형 AI 활용 교육과 근로자의 윤리·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설계 필요

<생성형 AI 활용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



VI 시사점

- 생성형 AI 활용은 이미 전 세대와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 기업 입장에서선 AI로 인한 기술격차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선 AI로 인한 기회격차도 발생하고 있음
- 생성형 AI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으나,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도출하는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
- 특히, 20대의 경우 활용능력과 빈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I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반면, 50대 이상의 관리자층은 생성형 AI를 업무 기획, 직원 관리 등의 도구로 활용하며 업무효율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 세대 간 활용 목적과 인식 차이가 확인됨
- 이에 생성형 AI의 고도화는 관리자급의 직무는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과 같은 저경력자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등 일자리 기회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AI 활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정보보안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정보보안의 빈틈을 막기 위해, 조직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과 활용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함
- 결과적으로, 생성형 AI는 근로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넘어서 조직 문화와 직무설계, 인력 재교육 등 구조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변화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기업 전반에 요구됨

<부록1>

<지역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률>

구분	활용	활용하지 않음
20대	85.0	15.0
30대	82.1	17.9
40대	67.5	32.5
50대 이상	71.3	28.8
정보통신업	90.7	9.3
금융·보험업	78.1	21.9
교육연구업	80.4	19.6
제조업	72.3	27.7
유통업·서비스업	77.4	22.6
의료·보건업	70.2	29.8
건설업	55.3	44.7
기타	60.0	40.0
총괄	74.4	25.6

<부록2>

<생성형 AI에 대한 부산지역 기업 내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 권장	필요시 허가, 장려하지 않음	AI 활용에 보수적이거나 부정적	회사 내 사용 전면 불가	관련 논의 없음
20대	15.0	30.0	10.0	15.0	30.0
30대	24.5	32.1	9.4	4.7	29.2
40대	20.2	36.0	10.5	0.9	32.5
50대 이상	17.5	41.3	6.3	3.8	31.3
정보통신업	51.2	25.6	2.3	2.3	18.6
금융·보험업	9.4	53.1	12.5	6.3	18.8
교육연구업	23.9	43.5	6.5	2.2	23.9
제조업	12.8	40.4	12.8	2.1	31.9
유통업·서비스업	17.0	34.0	11.3	3.8	34.0
의료·보건업	12.8	29.8	14.9	6.4	36.2
건설업	17.0	29.8	4.3	4.3	44.7
기타	20.0	20.0	0	0	60
총괄	20.6	35.6	9.1	3.8	30.9

<부록3>

<생성형 AI에 대한 기업 내 가이드라인 유무>

(단위: %)

구분	AI 관련 가이드라인 존재	데이터 관련 보안정책만 보유	가이드라인 없음	잘 모름
20대	5.0	10.0	45.0	40.0
30대	1.9	16.0	31.1	50.9
40대	7.0	14.9	33.3	44.7
50대 이상	7.5	25.0	28.8	38.8
정보통신업	9.3	27.9	46.5	16.3
금융·보험업	9.4	21.9	21.9	46.9
교육연구업	8.7	21.7	43.5	26.1
제조업	4.3	17.0	44.7	34.0
유통업·서비스업	1.9	11.3	41.5	45.3
의료·보건업	4.3	12.8	46.8	36.2
건설업	2.1	14.9	59.6	23.4
기타	0	0	80.0	20.0
총괄	5.3	17.5	45.0	32.2

<부록4>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목적>

(단위: %)

구분	개인용무만 활용	업무에도 활용
20대	47.1	52.9
30대	21.8	78.2
40대	24.7	75.3
50대 이상	24.6	75.4
정보통신업	12.8	87.2
금융·보험업	32.0	68.0
교육연구업	16.2	83.8
제조업	14.7	85.3
유통업·서비스업	41.5	58.5
의료·보건업	36.4	63.6
건설업	23.1	76.9
기타	33.3	66.7
총괄	25.2	74.8

<부록5>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활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움	회사에서 보안정책상 AI 사용을 제한	개인정보유출, 부정확한정보 등 신뢰성 부족	답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20대	33.3	33.3	0	33.3	0
30대	68.4	10.5	5.3	10.5	5.3
40대	59.5	8.1	2.7	24.3	5.4
50대 이상	56.5	30.4	0	13.0	0
정보통신업	100	0	0	0	0
금융·보험업	42.9	28.6	0	14.3	14.3
교육연구업	66.7	11.1	0	22.2	0
제조업	69.2	7.7	7.7	7.7	7.7
유통업·서비스업	33.3	25.0	8.3	33.3	0
의료·보건업	64.3	14.3	0	21.4	0
건설업	57.1	19.0	0	19.0	4.8
기타	100	0	0	0	0
총괄	59.8	15.9	2.4	18.3	3.7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

<부록6>

<근로자의 생성형 AI 주요 활용 목적>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정보 및 자료검색	문서작성	데이터 및 통계 분석	사진 및 이미지 생성	창의적 콘텐츠 생성	발표자료 제작	고객 응대 및 상담
20대	58.8	47.1	23.5	29.4	41.2	23.5	11.8
30대	64.4	43.7	26.4	31.0	32.2	17.2	17.2
40대	53.2	37.7	29.9	31.2	18.2	23.4	11.7
50대 이상	73.7	21.1	33.3	19.3	22.8	17.5	7.0
정보통신업	69.2	35.9	53.8	23.1	30.8	17.9	10.3
금융·보험업	60.0	40.0	28.0	28.0	16.0	28.0	24.0
교육·연구업	51.4	43.2	29.7	29.7	32.4	35.1	13.5
제조업	58.8	38.2	26.5	26.5	20.6	20.6	11.8
유통업·서비스업	58.5	26.8	29.3	34.1	24.4	9.8	22.0
의료·보건업	72.7	33.3	15.2	30.3	27.3	9.1	6.1
건설업	69.2	42.3	15.4	26.9	26.9	23.1	0
기타	66.7	33.3	0	0	33.3	0	0
총괄	62.6	36.6	29.0	28.2	26.1	19.7	12.6

<부록7>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숙련도>

(단위: %)

구분	복잡한 작업 수행 가능	일부 고급기능 활용	기본적 기능 활용	잘 사용하지 못함
20대	5.9	47.1	47.1	0
30대	8.0	42.5	48.3	1.1
40대	2.6	32.5	62.3	2.6
50대 이상	1.8	31.6	66.7	0
정보통신업	7.7	56.4	35.9	0
금융·보험업	4.0	32.0	56.0	8.0
교육연구업	5.4	43.2	51.4	0
제조업	2.9	44.1	52.9	0
유통업·서비스업	4.9	36.6	56.1	2.4
의료·보건업	0	18.2	81.8	0
건설업	7.7	19.2	73.1	0
기타	0	33.3	66.7	0
총괄	4.6	37.0	57.1	1.3

<부록8>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학습경로>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통한 자체학습	지인 등을 통한 학습	회사 자체 AI 활용 교육	지자체 등 공공기관 교육	교육 경험 없음
20대	45.0	15.0	20.0	25.0	30.0
30대	34.0	26.4	9.4	9.4	35.8
40대	36.8	21.1	14.9	7.9	36.0
50대 이상	51.3	12.5	12.5	5.0	28.8
정보통신업	41.9	23.3	14.0	7.0	27.9
금융·보험업	43.8	15.6	12.5	15.6	34.4
교육연구업	52.2	19.6	13.0	17.4	23.9
제조업	29.8	8.5	12.8	8.5	46.8
유통업·서비스업	39.6	20.8	15.1	1.9	34.0
의료·보건업	36.2	31.9	6.4	10.6	31.9
건설업	40.4	21.3	17.0	4.3	34.0
기타	20.0	20.0	0	0	60.0
총괄	40.0	20.3	12.8	8.8	33.8

<부록9>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교육 수요>

(단위: %)

구분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보통	다소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20대	25.0	65.0	5.0	5.0	0
30대	28.3	50.9	15.1	2.8	2.8
40대	21.1	49.1	25.4	3.5	0.9
50대 이상	35.0	47.5	15.0	1.3	1.3
정보통신업	39.5	51.2	4.7	2.3	2.3
금융·보험업	28.1	53.1	15.6	3.1	0
교육연구업	28.3	50.0	17.4	4.3	0
제조업	21.3	51.1	19.1	4.3	4.3
유통업·서비스업	22.6	52.8	22.6	1.9	0
의료·보건업	31.9	44.7	17.0	2.1	4.3
건설업	21.3	51.1	25.5	2.1	0
기타	20.0	40.0	40.0	0	0
총괄	27.2	50.3	18.1	2.8	1.6

<부록10>

<생성형 AI가 업무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시기 전망>

(단위: %)

구분	이미 보편화 됨	6개월~1년 이내	1~3년 이내	3~10년 이내	10년 이상 필요
20대	35.0	20.0	25.0	20.0	0
30대	16.0	20.8	35.8	26.4	0.9
40대	10.5	14.0	37.7	31.6	6.1
50대 이상	7.5	15.0	31.3	41.3	5.0
정보통신업	23.3	20.9	27.9	25.6	2.3
금융·보험업	6.3	18.8	43.8	31.3	0
교육연구업	17.4	23.9	34.8	21.7	2.2
제조업	4.3	14.9	27.7	40.4	12.8
유통업·서비스업	20.8	11.3	32.1	32.1	3.8
의료·보건업	8.5	17.0	51.1	23.4	0
건설업	8.5	12.8	31.9	44.7	2.1
기타	20.0	20.0	0	40.0	20.0
총괄	13.1	16.9	34.7	31.6	3.8

<부록11>

<부산지역 근로자의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업무 파트너	단순 도구	잠재적 위험 및 경쟁자
20대	15.0	55.0	30.0
30대	13.2	75.5	11.3
40대	18.4	66.7	14.9
50대 이상	25.0	61.3	13.8
정보통신업	23.3	62.8	14.0
금융·보험업	25.0	56.3	18.8
교육연구업	10.9	82.6	6.5
제조업	17.0	70.2	12.8
유통업·서비스업	22.6	64.2	13.2
의료·보건업	14.9	70.2	14.9
건설업	14.9	61.7	23.4
기타	20.0	80.0	0
총괄	18.1	67.5	14.4

<부록12>

<생성형 AI 도입 이후 근로자가 느끼는 업무 효율 변화>

(단위: %)

구분	업무처리가 빨라짐	과거와 비슷함	오히려 더 오래걸림
20대	40.0	45.0	15.0
30대	63.2	35.8	0.9
40대	45.6	52.6	1.8
50대 이상	45.0	51.3	3.8
정보통신업	65.1	34.9	0
금융·보험업	56.3	40.6	3.1
교육연구업	45.7	52.2	2.2
제조업	48.9	46.8	4.3
유통업·서비스업	54.7	41.5	3.8
의료·보건업	51.1	44.7	4.3
건설업	36.2	63.8	0
기타	60.0	20.0	20.0
총괄	50.9	46.3	2.8

<부록13>

<생성형 AI 도입 이후 근로자가 느끼는 업무량 변화>

(단위: %)

구분	업무량 감소	과거와 비슷	업무량 증가
20대	15.0	80.0	5.0
30대	19.8	73.6	6.6
40대	23.7	71.1	5.3
50대 이상	21.3	71.3	7.5
정보통신업	27.9	62.8	9.3
금융·보험업	21.9	68.8	9.4
교육연구업	17.4	76.1	6.5
제조업	14.9	80.9	4.3
유통업·서비스업	30.2	66.0	3.8
의료·보건업	23.4	72.3	4.3
건설업	12.8	80.9	6.4
기타	20.0	60.0	20.0
총괄	21.3	72.5	6.3

<부록14>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향후 인력구조 변화 전망>

(단위: %)

구분	긍정적 영향 (일자리 증가 등)	별다른 영향 없음	부정적 영향 (일자리 감소 등)
20대	5.6	27.8	66.7
30대	8.1	34.9	57.0
40대	8.4	25.3	66.3
50대 이상	8.5	31.0	60.6
정보통신업	7.7	30.8	61.5
금융·보험업	3.8	38.5	57.7
교육연구업	5.3	31.6	63.2
제조업	13.5	27.0	59.5
유통업·서비스업	11.1	28.9	60.0
의료·보건업	5.0	22.5	72.5
건설업	9.3	30.2	60.5
기타	0	100	0
총괄	8.1	30.0	61.9

<부록15>

<생성형 AI 활용시 애로사항>

(단위: %, 복수응답)

구분	사실 검증을 위한 추가 절차 필요	개인정보 및 기술 유출 문제	저작권 위반 등 법적문제	과도한 의존으로 개인의 창의성 감소	업무에 활용시 가이드라인 부재	개인의 숙련도에 따른 결과물 도출 차이
20대	47.1	17.6	29.4	35.3	5.9	5.9
30대	55.2	40.2	24.1	16.1	13.8	9.2
40대	46.8	40.3	28.6	16.9	22.1	7.8
50대 이상	33.3	52.6	22.8	17.5	17.5	15.8
정보통신업	46.2	43.6	20.5	15.4	15.4	5.1
금융보험업	48.0	40.0	36.0	24.0	8.0	4.0
교육연구업	43.2	45.9	32.4	18.9	18.9	2.7
제조업	32.4	38.2	23.5	20.6	23.5	23.5
유통업·서비스업	48.8	48.8	26.8	14.6	12.2	9.8
의료·보건업	48.5	42.4	24.2	15.2	18.2	15.2
건설업	61.5	30.8	15.4	23.1	19.2	11.5
기타	66.7	0	33.3	0	33.3	0
총괄	46.6	41.6	25.6	18.1	16.8	10.1

<부록16>

<지역기업 근로자의 생성형 AI 자료 검증 현황>

(단위: %)

구분	검증하지 않음	중요업무에 한해 검증함	항상 검증함
20대	29.4	47.1	23.5
30대	15.0	51.7	33.3
40대	31.2	50.6	18.2
50대 이상	35.1	50.9	14.0
정보통신업	23.1	43.6	33.3
금융·보험업	24.0	60.0	16.0
교육·연구업	24.3	59.5	16.2
제조업	20.6	52.9	26.5
유통업·서비스업	26.9	46.3	26.8
의료·보건업	33.4	54.5	12.1
건설업	30.7	46.2	23.1
기타	33.3	0	66.7
총괄	26.1	50.8	23.1

<부록17>

<지역기업 근로자의 정보보안 조치 현황>

(단위: %)

구분	하지 않음	종종 한다	항상 한다
20대	35.3	58.8	5.9
30대	58.6	36.8	4.6
40대	59.7	33.8	6.5
50대 이상	68.4	28.1	3.5
정보통신업	53.7	33.3	12.8
금융·보험업	68.0	32.0	0
교육·연구업	57.5	29.7	10.8
제조업	50.0	47.1	2.9
유통업·서비스업	68.3	29.3	2.4
의료·보건업	51.5	48.5	0
건설업	69.3	26.9	3.8
기타	66.7	33.3	0
총괄	59.7	35.3	5.0

<부록18>

<생성형 AI 활용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

(단위: %)

구분	윤리 및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	AI 활용 교육 확대	AI 활용 기술 지원 강화	AI 관련 정보 공유 체계 마련
20대	45.0	5.0	35.0	15.0
30대	42.4	21.7	28.3	7.5
40대	28.9	37.7	18.4	14.9
50대 이상	35.0	32.6	21.3	11.3
정보통신업	41.9	30.2	23.3	4.7
금융·보험업	34.4	28.1	18.8	18.8
교육연구업	30.4	23.9	37.0	8.7
제조업	36.1	27.7	25.5	10.6
유통업·서비스업	26.4	35.9	22.6	15.1
의료·보건업	38.3	36.2	21.3	4.3
건설업	42.6	21.3	17.0	19.1
기타	60.0	20.0	0	20.0
총괄	36.6	28.8	23.4	11.6